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와의 동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루마니아는 EU 가입 후 인근 유럽에 노동의 길은 열렸지만 제한적이다 2014년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에도 노동이 허가됨에 따라 사람들이 수입이 좋은 해외로 나가는 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루마니아 현지인 교회도 젊은 층은 해외로 일을 떠나서 교회는 점점 고령화 추세이고요.

이곳 아르제쉬 현지인 교회도 목회자나 사역자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직장을 다니거나 해외로 가서 몇 개월씩 일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오그라더 집시교회도 사역자인 단형제가 생계를 위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일을 떠나서 제가 다시 오그라더에 주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단이 집으로 돌아오면 교회 사역을 다시 합니다. 코스민과 에밀리아가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교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두미교회와 오이에쉬티교회를 크리스티형제 부부와 함께, 수요일은 코스민, 에밀리아부부와 로툰다 사역, 금요일은 오그라더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祈禱의 통로

거룩한 영적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두미레쉬티교회 와 오이에쉬티 집시 교회는 크리스티, 로디카 부부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어린이 성경캠프, 달란트 시장, 등 모든 사역에 사랑과 마음으로 자기 종족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보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야기1

로툰다집시교회는 아이들이 찬양인도를 잘하고 매 주 수요일 날은 아이들이 마을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트라이안 형제가 간암으로 인해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관계로 코스민과 로툰다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안 형제가 회복되면 로툰다 교회 사역을 할 것입니다.

로툰다 교회 옆집 일리에 아내와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견고하여 주위의 핍박이나 냉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그베니 청소년



로툰다 어린이

올 해도 두미레쉬티마을에서 주일학교 나오던 여자아이들 6명이 시집을 갔습니다. 모두 12세, 13세 아이들로 초등학교 4, 5학년 다니다가 시집 갔고, 오이에쉬티 교회도 머덜리나(13세), 코스미나(12세) 둘이 지난주에 결혼하였는데 결혼 후 둘이 해외로 벌이를 떠납니다. 대부분의 집시부모들은 해외로 장기간 일을 떠나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는 자녀들 특히 딸들은 생활이 힘들고, 안전하지도 못하니 일찍 남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가는 것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祈禱의 통로

복음 이야기2



두미레시티마을은 네오를 비롯하여 5명의 남자아이들이 차 정비 기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지만 문제는 여자아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세 곳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간 여자 청년이 없습니다. 앞으로 9월 신학기에 5학년 되는 에스테라가 최초 고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아르제쉬 신학교 건물에서 두미레쉬티, 오이에쉬티, 오그라더, 티그베니, 로툰다 등 5곳 집시마을에 청소년, 어린이 여름 성경캠프를 2회 하였습니다. 아동들과 3박 4일 합숙하며 성경암송, 예배, 말씀 위주 진행하였고 집시아동들에게는 복음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시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들

청소년 제자훈련의 필요성

절실히 필요한 일은 각 집시마을 청소년 제자훈련인데요.

앞으로 교회에 일꾼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 1회 청소년들과 성경공부 및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봉고차량도 준비돼야 하지만 집시 부모들이 일을 시키려고 호응하지 않아 어려움도 있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미넬라도 티그베니 고아원에서 전도를 잘 하고 있고요.

에마, 에스테라도 많이 컸습니다.

지금 방학이라 두미레쉬티마을 부모와 함께 있는데 9월 새학기 개학하면 아르제쉬로 옵니다.

그동안 집시사역으로 소홀했던 현지인 교인 가정 심방도 시작하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적지 않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 총회 형제들이 교리 문제로 분열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이로 인해 지역 교회들이 둘로 갈리지는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오이에쉬티 현지인 교회도 아우렐과 트라이안 형제가 서로 갈라져서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저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서 안전함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사역 보다는 기도로 영적 충전과 말씀준비가 더 우선되어야 함은 복음 전파에 무기이기 때문이지요.

동역자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1. 집시청소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환경과 길을 열어 주시기를
2. 집시 아동들을 위하여 사역자 및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3. 간이식 수술을 한 트라이안 형제와 종양 수술한 빌라자매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